Original Article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25, Vol. 38, No. 3, 19-39

ISSN(Print) 1229-0718
ISSN(Online) 2671-6542
https://doi.org/10.35574/KJDP.2025.9.38.3.19

OPEN ACCES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초기 성인기의 불공정세상신념과 사이버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Received: July 11, 2025
Revised: August 25, 2025
Accepted: August 29, 2025

함규원[1], 이승연[2]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1],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2]

교신저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slee1@ewha.ac.kr

Belief in an Unjust World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Among Early Adults: The Mediating Effects of Malicious Envy and Moral Disengagement

Kyuwon Ham[1], Seungyeon Lee[2]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M.A.[1]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2]

* 해당 논문은 함규원(2025)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pyright 2025.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불공정세상신념과 사이버폭력 가해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에서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0대 성인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불공정세상신념은 사이버폭력 가해를 직접적으로는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불공정세상신념은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을 각각 매개해 사이버폭력 가해 수준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이중매개효과 역시 유의하였다. 즉, 불공정세상신념은 증가된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을 거쳐서 사이버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정성과 관련한 이슈가 주요한 현안인 현대 사회에서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불공정세상신념과 사이버폭력 가해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기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불공정세상신념, 악의적 선망, 도덕적 이탈, 사이버폭력 가해

www.kci.go.kr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인 사이버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이 우리 삶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현대 사회의 큰 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이버폭력이란 사이버(인터넷, 스마트폰 등) 공간에서 언어, 문자,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안감, 불쾌감 등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이 2019년에 16,633건에서 2022년에는 29,258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경찰청, 2021; 경찰청, 2023) 사이버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성인의 경우 사이버 언어폭력(4.0%)이 가장 흔했으며, 사이버 스토킹(2.4%), 사이버 성폭력(1.9%), 사이버 명예훼손(1.5%)이 그 뒤를 이었다(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사이버폭력 피해는 우울(유선아, 2022), 불안(Wright, 2016), 자살사고(유선아, 2022; Wright, 2016), 섭식 문제(Marco et al., 2018) 등 피해자에게 여러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와 개입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초기 성인기에 초점을 맞추어 사이버폭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2~30대는 인터넷과 SNS의 사용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터넷 이용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성인 가운데 사이버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이다(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게다가 이 시기에는 가정과 학교의 영향력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므로 사이버폭력 가해를 예방하는 데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통제와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렵다(전대성, 김동욱, 2016). 따라서 이들이 사이버폭력을 저지르게 되는 기제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예방과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가정과 학교가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가 비교적 제한되어 있던 아동·청소년기를 지나 초기 성인기에 진입한 개인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나아가 이 시기의 성인은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삶의 여러 측면에서 불공정성을 마주하게 되며, 대학 생활과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와 구직, 직장 생활 등에서 사회에 잔존한 차별과 부정의를 실감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평등, 차별, 공정성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다.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특권을 누리던 집단들이 약자를 위한 제도나 사회의 변화로 인해 역차별받는다는 주장도 만연하며, 이와 관련한 갈등은 특히 온라인에서 집단 간의 과열된 논쟁, 폭언이나 악성 댓글 등으로 나타난다.

세상의 불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설명하는 변인이 바로 불공정세상신념(belief in an unjust world)이다. 먼저, 공정세상신념(belief in a just world)이란 세상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고, 공정하다는 믿음(Lerner & Miller, 1978; Zhang et al., 2022)을 말하는데, 이에 따르면 공정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들을 받으며 좋은 행동은 보상받고 나쁜 행동은 처벌받는다(Zhang et al., 2022). 그러나 삶에서 차별이나 불공정함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개인은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믿음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Lench & Chang, 2007; Liang & Borders. 2012), 이를 불공정세상신념이라고 한다. 처음에 공정세상신념과 불공정세상신념은 연속선의 양극단에 있는 개념으로 이해되었으나(Rubin & Peplau, 1975), 점차 두 개념이 구분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

www.kci.go.kr

고(Furnham, 1985; O'Quin & Vogler, 1990), Dalbert 등(2001), Lench와 Chang(2007) 등의 연구에 이르러 독립된 구인으로 확립되었다. 공정세상신념이 약한 것은 정의로운 것이 때로는 보상받고 때로는 처벌받는 무선적이고 임의적인 세상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면(Furnham, 1985; Furnham, 2003), 불공정세상신념은 일관되게 정의로운 것이 보상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처벌받으며 부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Furnham, 1985; Furnham, 2003; Furnham & Procter, 1989).

불공정세상신념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다만 지각된 교사의 불공평함은 학생의 괴롭힘 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며(Lenzi et al., 2014), 불공정세상신념이 부정 정서나 분노 반추를 정적으로 예측하고(Liang & Molenaar, 2016), 사회적 연결성을 약화시키며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Liang & Borders, 2012)가 보고된다. 또한, 교도관과 수감자의 공정세상신념과 불공정세상신념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수감자가 교도관보다 불공정세상신념이 강했으며, 더 고의적인 범죄(강도, 사기)를 저지른 수감자가 비교적 충동적이고 개인이 처한 상황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도둑질이나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보다 불공정세상신념 수준이 더 높았다(Dalbert et al., 2001). 이는 불공정세상신념이 고의로 윤리를 위반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처럼 불공정함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은 개인이 공격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끌 수 있다(Lenzi et al., 2014; Wang et al., 2024). 세상은 불공정하며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는다는 인식은 본인 역시 불공정한 행위, 즉 폭력을 저지르고자 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세상을 보는 부정적인 도식은 온라인에서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언행 역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쉽게 분노하게 한다. 상대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며 직접 만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폭력을 행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는 오프라인에서보다 다양한 타인을 공격하는 것이 비교적 쉽고 그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개인이 지닌 불공정세상신념이 폭력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세상신념과 사이버폭력 가해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제로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에 관해 살펴보았다. 사회 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행동에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Bandura, 2002). 불공정세상신념은 개인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데 단독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사회 인지 이론에 따르면 그러한 믿음 자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여 사이버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성 담론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며 관련한 갈등과 논쟁도 커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성취에 악의적으로 반응하거나 정당한 방법만을 사용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도 함께 나타나며 이러한 행태는 온라인에서 쉽게 폭력적인 형태로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부정적인 환경 경험 등으로 인해 구축된 불공정세상신념이라는 믿음이 우월한 타인을 향한 악의적인 정서로 이어지고, 결국 도덕적 인지를 왜곡시킴으로써 사이버폭력이라는 비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망이란 상향 비교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우월한 특성이나 성취, 소유물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반응으로, Lange, Weidman과 Crusius

www.kci.go.kr

(2018)의 고통에 의해 추동된 이중 선망 이론(pain-driven dual envy theory)에 의하면 선망은 무해한 선망(benign envy)과 악의적 선망(malicious envy) 두 종류로 구분된다. 무해한 선망은 자신을 끌어올려 선망의 대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동기를 수반하는 선망의 긍정적인 측면을, 악의적 선망은 적대적 사고와 선망의 대상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동기를 수반하는 선망의 부정적인 측면(Crusius et al., 2021; Lange, Weidman & Crusius, 2018; Ozden-Yildirim, 2019)을 일컫는다. 특히 온라인에서 사람들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업적, 소유 등을 전시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데, 상향 비교가 빈번한 온라인 세계에서는(Verduyn et al., 2020) 악의적 선망이 발현되기 쉽다는 점에서 사이버폭력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악의적 선망은 상대가 얻을 자격이 없는 것을 얻었다고 인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다. van de Ven 등(2012)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무해한 선망보다 악의적 선망을 경험한 상황을 회상했을 때 상대가 그 결과를 받을 자격이 없다(undeserved)고 평가했다. 상대가 공정한 세상에서 정당한 결과를 얻었다면 자신 또한 노력해 같은 성취를 얻고자 하는 무해한 선망이 유발되지만(Xu & Chen, 2023), 불공정한 세상에서는 상대방의 성취 역시 부당한 것이며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해 봐야 의미가 없으므로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공격해야만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나아가 불공정세상신념이 강한 개인은 타인의 성취 및 소유를 마주했을 때 세상의 불공정함을 상기하게 되고, 더욱더 악의적인 동기를 느끼게 될 수 있다. Smith 등(1994)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에게 선망을 느꼈던 경험을 글로 쓰게 한 뒤 적대감을 평정하게 했을 때 주관적인 불공정함이 이를 정적으로 예측했으며, Qin과 Zhang (2022)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불공정성이 분노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는데, 분노와 적대감은 악의적 선망의 중요한 측면이다(Lange & Crusius, 2015; Zhao & Zhang, 2022).

한편, 선행 연구에서 무해한 선망은 공격성을 예측하지 않았으나 악의적 선망은 공격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Jiang et al., 2022), 악의적 선망은 마키아벨리아니즘적 행동과 정신병질적 행동(Lange, Paulhus & Crusius, 2018), 온라인에서의 부정적인 뒷말하기(Latif et al., 2021)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선망의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게시하고 헐뜯거나 조롱하며 대상의 지위에 해를 입히고 자신과 비슷한 위치로 끌어내릴 수 있다(Lange, Paulhus & Crusius, 2018). 즉, 악의적 선망은 사이버폭력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도덕적 이탈이란 개인의 도덕적 자기조절 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해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인지적 과정을 말한다(Bandura, 1986; Lo Cricchio et al., 2021; Pornari & Wood, 2010). 내적이거나 외적인 유인들이 도덕적 자기조절 능력을 압도하게 되면 개인은 도덕적 규준에서 이탈될 수 있는데(Bandura, 1990), 도덕적 이탈은 공격적인 행동과 범죄 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도덕적 이탈은 개인의 특성 및 환경적,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으며(Hystad et al., 2014), 불공정세상신념 또한 사람들이 도덕적 자기 조절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키며 도덕적인 것이 보상받는 공정한

www.kci.go.kr

세상에서는 도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이득을 얻고 도덕적인 행동은 보상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세상에서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합리화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세상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때때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게 될 수 있다. 실제로 Zhao 등(2020)은 도덕적 이탈이 개인이 지각한 불공정성에 대처하는 전략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지각된 조직 불공정성은 도덕적 이탈을 정적으로 예측한 바 있다(Hystad et al., 2014).

도덕적 이탈이 일어나면 개인은 죄책감을 덜 느끼며 해로운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약화되어 쉽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Bandura et al., 1996). 도덕적 이탈은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Gómez Tabares & Landinez-Martínez, 2021), 비행 행동(Bao et al., 2015) 등을 정적으로 예측하며, 전통적인 형태의 괴롭힘(Wang et al., 2017)과 사이버폭력(Lo Cricchio et al., 2021)을 모두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세상이 불공정한 곳이라고 믿게 되면 도덕적 이탈이 일어나기 쉽게 되고, 이는 사이버폭력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한편,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이 불공정세상신념과 사이버폭력 가해의 관계를 각각 매개할 수도 있으나, 불공정세상신념이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을 순차적으로 거쳐 사이버폭력 가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추측하였다.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기 위해는 자기 조절을 위한 자원을 소모해야 하기에(Muraven & Baumeister, 2000) 악의적 선망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활성화되면 남은 자원이 줄어들어 자기 통제가 약화되고(Briki, 2019; Wei & Yu, 2022), 도덕적 자기 조절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Fida et al., 2018; Zhao et al., 2020). 또한, 악의적 선망을 경험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악의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정당화하고(Rengifo & Laham, 2022) 상대의 것을 빼앗거나 상대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덕적 인지를 왜곡할 수 있다. 선망은 비도덕적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이득은 크게 평가하고 심리적 비용은 낮게 평가하도록 한다는 연구(Moran & Schweitzer, 2008)가 존재하며, Roy 등(2024)의 실험 연구에서는 무해한 선망 조건과 통제 조건과 비교해 악의적 선망 조건에서 비윤리적 소비자 행동을 잘못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선망, 특히 악의적 선망을 경험할 때 도덕적 이탈이 더 쉽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세상이 불공정한 곳이라는 믿음이 사이버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관계를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이 매개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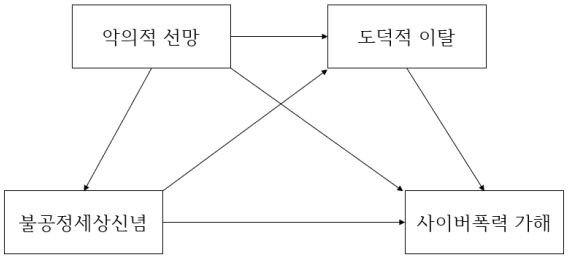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연구 문제 1. 불공정세상신념이 사이버폭력 가해를 예측하는가?

연구 문제 2.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이 불공정세상신념과 사이버폭력 가해의 관계를 각각 매개

www.kci.go.kr

하는가?

연구 문제 3.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이 불공정세상신념과 사이버폭력 가해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국 2~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 보고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3명의 답변이 회수되었으나, 마할라노비스의 거리(mahalanobis distance)를 이용해 이상값에 해당하는 1명의 답변을 제외하고 남은 40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성이 199명(49.5%), 여성이 203명(50.5%)이었으며, 20대가 166명(41.3%), 30대가 236명(58.7%)이었다.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와 중하가 각각 37명(9.2%)과 116명(28.9%), 중이 193명(48.0%), 중상과 상이 각각 53명(13.2%)과 3명(0.7%)이었다.

연구도구

사이버폭력 가해

정소미(2011)의 사이버폭력 척도와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4)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박정숙(2016)이 개발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총 12문항(예: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댓글을 단 적이 있다.”)이나,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가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문항 한 개(“우연히 불법・유해 사이트에 접속되었을 때 재미있으면 보는 편이다.”)를 제외한 11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정숙(2016)의 대학생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불공정세상신념

Lench 등(2007)이 개발한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 척도(Unjust Views Scale)를 김은하 등(2021)이 타당화한 한국어판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총 5문항이나 타당화 과정에서 낮은 요인 부하량으로 인해 한 문항(“나는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가져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이 제외되어 총 4문항(예: “불공평하고 부당한 이유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강함을 의미한다. 김은하 등(2021)의 대학생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3이었다.

악의적 선망

임혜빈 등(2021)이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판 선망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ange와 Crusius(2015)가 개발한 무해한 선망과 악의적 선망 척도(Benign and Malicious Envy Scale)를 번안한 10문항과 연구자들이 새롭게 추가한 2문항,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해한 선망 6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이 이룬 뛰어난 업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과 악의적 선망 6문항(예:

www.kci.go.kr

"다른 사람들의 성취를 보면 그들을 원망하게 된다.")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악의적 선망 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악의적 선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혜빈 등(2021)의 성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94였다.

도덕적 이탈

윤황(2014)이 타당화한 한국판 성인용 도덕적 이탈 척도에서 연구자가 부정확한 번역을 일부 수정해 사용하였다. 윤황(2014)의 한국판 척도는 Bandura 등(1996)의 아동용 도덕적 이탈 척도를 바탕으로 Detert 등(2008)이 성인용으로 수정 및 개발한 도덕적 이탈 척도를 대한민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이다. Detert 등(2008)의 원척도는 Bandura 등(1996)의 32문항에서 8문항을 제외한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판 척도는 32문항을 모두 사용한다. 비난받을 행동 12문항(예: "내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괜찮다."), 해로운 효과 12문항(예: "누군가를 놀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 크게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8문항(예: "학대받는 사람은 대개 학대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의 세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윤황(2014)의 대학생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88, 비난받을 행동 .73, 해로운 효과 .77, 피해자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94, 비난받을 행동 .88, 해로운 효과 .90, 피해자 .81이었다.

연구절차

2025년 3월 전국 2~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업체를 통해 자기 보고식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시작 전 연구 목적과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동의 버튼을 누른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먼저 SPSS 25.0을 사용해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Mplus ver 8.3을 이용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후 구조 모형을 평가하였으며, 이때 본 연구뿐만 아니라 다수 선행 연구(Donat et al., 2023; 이란, 이영호, 2023; 정규형, 2024)에서 사이버폭력 가해 수준의 성차를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별을 통제하였다. 모형을 안정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는데, 하위요인이 있는 도덕적 이탈은 내용 알고리즘을, 단일요인인 나머지 변인은 요인 부하량이 높은 순서대로 각 문항을 묶음에 균형 있게 할당하는 요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백분위수 부스트랩(percentile bootstrap) 방법을 사용해 확인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먼저, 기술통계 분석 결과, 연구 변인들의 왜도 및 첨도의 값은 각각 -.16~1.21, -.60~1.07로, 왜

www.kci.go.kr

도와 첨도의 값이 각각 2와 7 이상일 때 정규 분포 가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Curran 등(1996)의 기준에 따라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상관분석 결과(표 1), 불공정세상신념은 악의적 선망(r=.34, p<.001), 도덕적 이탈(r=.51, p<.001), 사이버폭력 가해(r=.41, p<.001)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악의적 선망은 도덕적 이탈(r=.50, p<.001), 사이버폭력 가해(r=.62, p<.001)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이탈은 사이버폭력 가해와 정적 상관(r=.68, p<.001)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해 성차를 확인한 결과(표 2), 남성이 여성보다 사이버폭력 가해(t=3.71, p<.001)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인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없었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변인	1	2	3	4
1. 불공정세상신념	-			
2. 악의적 선망	.34***	-		
3. 도덕적 이탈	.51***	.50***	-	
4. 사이버폭력 가해	.41***	.62***	.68***	-
M(SD)	2.80 (.83)	2.30 (.98)	2.38 (.64)	1.73 (.89)
왜도	-.16	.52	.67	1.21
첨도	-.35	-.60	1.07	.52

***p<.001

표 2. 성별 차이 검정

	M(SD)			
	남자 (n=199)	여자 (n=203)	t	Cohen's d
불공정세상신념	2.83 (.84)	2.78 (.82)	.60	.06
악의적 선망	2.31 (.99)	2.28 (.98)	.32	.03
도덕적 이탈	2.44 (.69)	2.32 (.57)	1.96	.20
사이버폭력 가해	1.89 (.94)	1.57 (.80)	3.71***	.37

***p<.001

www.kci.go.kr

구조방정식 분석

먼저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χ^2 검정 결과(χ^2(38)=83.723, p<.001) 모형이 자료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영가설은 기각되었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는 CFI .988, SRMR .030, RMSEA .055(90% CI [.039, .071])로, 양호하였다. 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χ^2(46)=83.723(p<.001), CFI .988, SRMR .031, RMSEA .051(90% CI [.036, .066])로, 역시 양호한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구조 모형의 경로 계수를 살펴본 결과(그림 2, 표 3), 불공정세상신념은 사이버폭력 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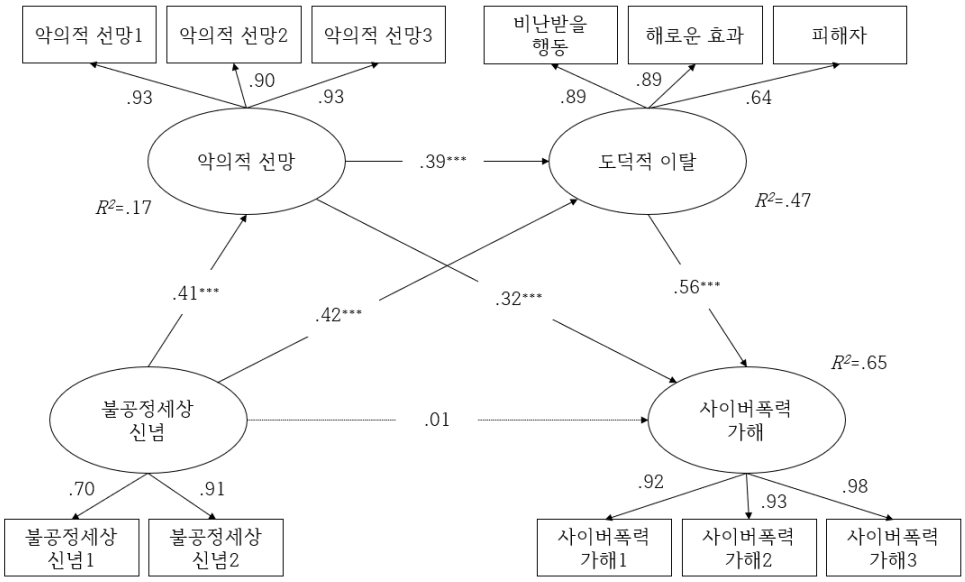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모형의 경로 계수 및 통계적 유의도 검정 결과

***p<.001

주. 표에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추정치임

표 3.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불공정세상신념 → 악의적 선망	.64***	.11	.41
불공정세상신념 → 도덕적 이탈	.41***	.06	.42
불공정세상신념 → 사이버폭력 가해	.02	.07	.01
악의적 선망 → 도덕적 이탈	.25***	.04	.39
악의적 선망 → 사이버폭력 가해	.29***	.04	.32
도덕적 이탈 → 사이버폭력 가해	.78***	.08	.56

***p<.001

www.kci.go.kr

와 직접 관련이 없었으나(γ=.01, ns), 악의적 선망(γ=.41, p<.001)과 도덕적 이탈(γ=.42, p<.001)과는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한편 악의적 선망은 도덕적 이탈(β=.39, p<.001)과 사이버폭력 가해(β=.32, p<.001)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으며, 도덕적 이탈은 사이버폭력 가해와 정적 관련이 있었다(β=.56, p<.001). 악의적 선망은 불공정세상신념에 의해 약 17%, 도덕적 이탈은 불공정세상신념과 악의적 선망에 의해 약 47%, 사이버폭력 가해는 불공정세상신념과 악의적 선망, 도덕적 이탈에 의해 약 65%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표본 수를 10,000개로 하는 부스트래핑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95%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검정 결과(표 4), 불공정세상신념과 사이버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악의적 선망의 단순매개효과(95% CI [0.087, 0.198])와 도덕적 이탈의 단순매개효과(95% CI [0.153, 0.326])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의 이중매개효과(95% CI [0.053, 0.142])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공정세상신념이 사이버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총효과(95% CI [0.379, 0.553])와 총간접효과(95% CI [0.363, 0.556])은 모두 유의하였으나, 직접효과(95% CI [-0.085, 0.103])는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불공정세상신념이 사이버폭력 가해를 예측하는지, 그 관계를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먼저 불공정세상신념이 사이버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총효과(95% CI [0.379, 0.553])는 유의하였으나 직접효과(95% CI [-0.085, 0.103])는 유의하지 않아, 불공정세상신념은 사이버폭력 가해를 직접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공정세상신념이 공격성을 예측한다는 선행 연구(Liang & Borders, 2012)나 지각된 교사의 불공정성이 괴롭힘 행동을 예측한다는 연구(Lenzi et al., 2014)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다만 상관 수준에서 두 변인은 정적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결과는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이라는 매개 변인을 함께 다루었기 때문

표 4. 매개효과 검정 결과

경로	간접효과	표준오차	95% CI	
			Lower	Upper
불공정세상신념 → 악의적 선망 → 사이버폭력 가해	.13***	.03	.087	.198
불공정세상신념 → 도덕적 이탈 → 사이버폭력 가해	.23***	.04	.153	.326
불공정세상신념 → 악의적 선망 → 도덕적 이탈 → 사이버폭력 가해	.09***	.02	.053	.142
총 간접효과	.46***	.05	.363	.556

***p<.001

www.kci.go.kr

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한편, 불공정세상신념과 사이버폭력의 관계에서 악의적 선망의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불공정함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악의적 선망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선행 연구(Smith et al., 1994; van de Ven et al., 2012)와 부합하며, 불공정세상신념은 본인보다 많은 것을 가지거나 성취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악의적 동기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악의적 선망이 사이버폭력 가해를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선행 연구(Ozden-Yildirim, 2019)와도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악의적 선망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악의적 방법을 통해 상대방을 격하시킴으로써 형평성을 회복하고(Pinder, 2008),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고통을 경감할 수 있다(Tai et al, 2012). 또한, 불공정함에 대한 지각은 열등감과 억울함을 자극하면서 자기 개념을 손상시키게 된다(Cohen-Charash & Mueller, 2007). 이때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개인은 선망의 고통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하기보다 부정적 방식으로 해소하고자 하기에, 해로운 행동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상대와의 차이를 줄여 상호적 공정성을 회복하며 자기감을 보호하고자 노력할 수 있다(Cohen-Charash & Mueller, 2007). 상향 비교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온라인 공간에서(Verduyn et al., 2020) 상대가 과시하는 성취나 소유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악의적 선망을 느끼면서 이러한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해소하고 자기 개념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쉽게 마주하게 되는, 타인의 성취를 순수하게 감탄하기보다 비난하고 욕하는 반응은 이처럼 타인의 성취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과 이로 인한 악의적인 선망이라는 정서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적 이탈의 단순매개효과 역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불공정성이 도덕적 이탈로 이어진다는 선행 연구(Hystad et al., 2014; Wang et al., 2024)와 일치한다. Zitek 등(2010)의 실험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꼈던 경험을 회상하게 했을 때 지루했던 경험을 회상하게 했을 때보다 이기적인 행동을 하려는 의향을 더 높게 보고했으며, 쓰레기를 놓고 가거나 실험자의 펜을 가져가는 등 비도덕적 행동을 더 많이 했다. 불공정세상신념이 강한 개인은 어차피 모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며 산다고 합리화하거나, 자신이 하는 일은 불공정함을 바로잡기 위한 것뿐이라고 명명하거나, 혹은 더한 차별과 폭력과 비교하며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의 악영향을 축소할 수 있다. 한편, 도덕적 이탈이 사이버불링을 종단적으로 예측한다는 선행 연구(Gao et al., 2023)와도 일치하였다. 온라인에서는 상대의 반응을 섬세하게 읽기 힘들기에 현실 세계에서보다 공감 능력이 감소하며(Carrier et al., 2015), 도덕적 가치가 흐려져 충동적으로 비윤리적 행동을 하게 될 때 방해물이 비교적 적으므로 도덕적 이탈은 쉽게 사이버폭력 가해로 연결될 수 있다. 덧붙여 공정한 상황 조건보다 불공정한 상황 조건에서 사회적 폄하(social undermining)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컸으며 도덕적 이탈이 이 관계를 매개했다는 실험 연구(Wang et al., 2024)는 도덕적 이탈이 불공정성과 비도덕적인 행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의 결과와 상통한다. 불공정한 세상에서는 도덕의 가치가 약화되고, 개인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정당한 대응이나 방안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다.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의 이중매개효과 역시

www.kci.go.kr

유의하였다. 이는 악의적 선망이 도덕적 이탈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선행 연구(Rengifo & Laham, 202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악의적 선망은 다양한 방식으로 도덕적 이탈로 이어진다. 첫째, 악의적 선망을 느낀 사람들은 그 대상이 좋은 결과를 얻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며 책임을 전가하고 나쁜 일을 당할 만하다고 비난할 수 있다. 둘째, '공평함을 되찾기 위해', '상대방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완곡한 명명을 하며 정당화할 수 있다(Duffy et al., 2012). 셋째, 비도덕적인 행동을 통해 상대방과 자신의 위치를 비슷하게 맞출 수 있기에 이러한 행동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는 무시하고 왜곡하게 될 수 있다(Thiel et al., 2021). 사회적 상향 비교로 인해 악의적 선망을 느끼며 도덕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소망이 활성화되었을 때, 개인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덕적 인지를 왜곡함으로써 가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리하자면, 불공정세상신념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믿음이 유발하는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정서와 인지적 왜곡이 개인으로 하여금 사이버폭력을 저지르도록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불공정한 곳이라는 인식은 개인의 정서뿐만 아니라 도덕적 자기 조절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가해에 대해 살펴볼 때는 불공정세상신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정서와 인지적 기제를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적 생소한 변인인 불공정세상신념과 악의적 선망을 사이버폭력 가해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해의 폭을 확장하였다. 공정세상신념은 사이버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보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불공정세상신념은 사이버폭력을 저지르는 원인을 탐색하는 데 유용한 변인이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악의적 선망 역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폭력 가해와 관련하여 불공정세상신념과 악의적 선망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기존 사이버폭력 연구(예: 김경은, 최은희, 2017; 문인수, 2021)와 달리 현 사회와 2~30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의 가능한 원인과 기제를 탐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사이버폭력 가해에 대한 개입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불공정세상신념 자체를 바꾸는 개입에는 어려움이 있다. 세상은 실제로 불공정할 수 있으며,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는 더욱더 불공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 세상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지만, 적대적이고 편향된 시선으로 인해 불공정세상신념이 강하게 나타난 개인에 대해서는 사회의 공정성에 관해 균형 있는 관점을 되찾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불공정세상신념에 대한 개입이 어렵다면,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에 대한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악의적 선망은 성공에 대한 희망에 의해 부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정적으로 예측되는데(Lange & Crusius, 2015), 이에 따르면 악의적 선망은 노력해도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발전시키는 대신 상대를 깎아내려 같은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효능감을 높이는 개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수정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CBT(Niveau et al., 2021)나

www.kci.go.kr

성장 마인드셋과 도전-접근 동기 등을 향상시키는 마인드셋 개입(Burgoyn et al., 2018)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도덕적 이탈에 대한 개입은 많지 않으나 괴롭힘 상황을 묘사하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사례에서 사용된 도덕적 이탈의 기제를 다루는 아동 대상 개입은 도덕적 이탈과 괴롭힘 행동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Tolmatcheff et al., 2022). 이와 유사하게 성인이 흔하게 하는 비도덕적인 행동이 묘사된 이야기를 통해 사용된 도덕적 이탈의 기제에 이름을 붙이고 논의해 보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추측된다.

다만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점수는 5점 만점에 1.73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1.36~1.76점(이란, 이영호, 2023)으로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나, 추후에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더 많은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이버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한다면 더욱 깊이 있는 통찰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연구 변인에 부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어 참여자들이 실제보다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성인 가운데 인터넷을 가장 활발히 사용하며 사이버폭력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시기인 2~30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높은 연령대에서도 인터넷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이버폭력에 젊은 연령대와는 다른 역학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에는 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과 관계를 확증할 수 없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공정세상신념이나 선망 등이 폭력 행동을 예측함을 보고하고 있으나(Donat et al., 2023; Ozden-Yildirim, 2019), 개인이 가해 행동에 참여한 경험이 부정적인 인지 및 정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종단 연구를 통한 반복 검증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은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갈취, 강요 등 여러 형태로 일어나며(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종류에 따라 원인 역시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에는 사이버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경찰청 (2021). **2020 사이버범죄 동향 분석 보고서.**

경찰청 (2023). **2023년 사이버범죄 트렌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2023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김경은, 최은희 (2017).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와 사이버폭력 가해관계: 사이버폭력 피해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0**(38), 75-97.

김은하, 김해빈, 김지윤 (2021). 한국어판 불공정에 대한 인식 척도의 타당화. **인간이해, 42**(2),

www.kci.go.kr

101-124.

문인수 (2021). 부모의 사이버매체 이용 중재수준이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피해, 가해, 중첩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7**(2), 35-48.

박정숙 (2016). **인터넷윤리 교육이 사이버폭력 예방에 미치는 효과 연구: 인터넷윤리의식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2014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2023 사이버폭력실태조사.**

유선아 (2022).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3**(5), 2445-2454.

윤황 (2014). **정신병질 성향자들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도덕적 정서 및 도덕적 이탈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란, 이영호 (2023). 분노 억압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23**(1), 99-121.

임혜빈, 윤진헌, 최준영, 이병관 (2021). 한국판 선망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2**(2), 271-291.

전대성, 김동욱 (2016). 성인들의 사이버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0**(3), 25-43.

정규형 (2024).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하위요인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5**(9), 334-339.

정소미 (2011).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 윤리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Bandura, A. (1990). Selective activation and disengagement of moral control. *Journal of Social Issues, 46*(1), 27-46. https://doi.org/10.1111/j.1540-4560.1990.tb00270.x

Bandura, A. (2002). Selective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2), 101-119. https://doi.org/10.1080/0305724022014322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364-374. https://doi.org/10.1037/0022-3514.71.2.364

Bao, Z., Zhang, W., Lai, X., Sun, W., & Wang, Y. (2015). Parental attachment and Chinese adolescents' delinquency: The mediating role of moral disengagement. *Journal of Adolescence, 44*, 37-47.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5.06.002

Briki, W. (2019). Harmed trait self-control: Why do people with a higher dispositional malicious envy experience lower subjective wellbeing?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www.kci.go.kr

20(2), 523-540. https://doi.org/10.1007/s10902-017-9955-x

Burgoyne, A. P., Hambrick, D. Z., Moser, J. S., & Burt, S. A. (2018). Analysis of a mindset interven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77*, 21-30. https://doi.org/10.1016/j.jrp.2018.09.004

Carrier, L. M., Spradlin, A., Bunce, J. P., & Rosen, L. D. (2015). Virtual empathy: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going online upon empathy in young adul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2*, 39-48. https://doi.org/10.1016/j.chb.2015.05.026

Cohen-Charash, Y., & Mueller, J. S. (2007). Does perceived unfairness exacerbate or mitigate interpersonal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s related to env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3), 666-680. https://doi.org/10.1037/0021-9010.92.3.666

Crusius, J., Thierhoff, J., & Lange, J. (2021). Dispositional greed predicts benign and malicious env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8*, Article 110361. https://doi.org/10.1016/j.paid.2020.110361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https://doi.org/10.1037/1082-989X.1.1.16

Dalbert, C., Lipkus, I. M., Sallay, H., & Goch, I. (2001). A just and an unjust world: Structure and validity of different world belief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4), 561-577. https://doi.org/10.1016/S0191-8869(00)00055-6

Detert, J. R., Treviño, L. K., & Sweitzer, V. L. (2008). Moral disengagement in ethical decision making: a study of antecedents and outcom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2), 374-391. https://doi.org/10.1037/0021-9010.93.2.374

Donat, M., Willisch, A., & Wolgast, A. (2023). Cyber-bully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Concurrent relations to belief in a just world and to empathy. *Current Psychology, 42*(10), 7883-7896. https://doi.org/10.1007/s12144-022-03239-z

Duffy, M. K., Scott, K. L., Shaw, J. D., Tepper, B. J., & Aquino, K. (2012). A social context model of envy and social undermining.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5*(3), 643-666. https://doi.org/10.5465/amj.2009.0804

Fida, R., Tramontano, C., Paciello, M., Ghezzi, V., & Barbaranelli, C. (2018). Understanding the interplay among regulatory self-efficacy, moral disengagement, and academic cheating behaviour during vocational education: A three-wave stud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3*(3), 725-740. https://doi.org/10.1007/s10551-016-3373-6

Furnham, A. (1985). Just world beliefs in an

www.kci.go.kr

unjust society: a cross cultural comparis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 363-366. https://doi.org/10.1002/ejsp.2420150310

Furnham, A. (2003). Belief in a just world: Research progress over the past deca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795-817. https://doi.org/10.1016/S0191-8869(02)00072-7

Furnham, A., & Procter, E. (1989). Belief in a just world: Review and critique of the individual difference literatur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4), 365-384. https://doi.org/10.1111/j.2044-8309.1989.tb00880.x

Gao, L., Li, X., & Wang, X. (2023). Agreeableness and adolescents' cyberbullying perpetration: A longitudinal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moral disengagement and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91*(6), 1461-1477. https://doi.org/10.1111/jopy.12823

Gómez Tabares, A. S., & Landinez-Martínez, D. A. (2021). Moral disengagement mechanisms and its relationship with aggression and bullying behaviour among school children and youth at psychosocial risk. *Emotional and Behavioural Difficulties, 26*(3), 225-239. https://doi.org/10.1080/13632752.2021.1945801

Hystad, S. W., Mearns, K. J., & Eid, J. (2014). Moral disengagement as a mechanism between perceptions of organisational injustice and deviant work behaviours. *Safety Science, 68*, 138-145. https://doi.org/10.1016/j.ssci.2014.03.012

Jiang, X., Li, X., Dong, X., & Wang, L. (2022). How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related to aggression from perspectives of the benign and malicious envy. *BMC Psychology, 10*(1), Article 203. https://doi.org/10.1186/s40359-022-00906-5

Lange, J., & Crusius, J. (2015). Dispositional envy revisited: Unraveling the motivational dynamics of benign and malicious env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1*(2), 284-294. https://doi.org/10.1177/0146167214564959

Lange, J., Paulhus, D. L., & Crusius, J. (2018). Elucidating the dark side of envy: Distinctive links of benign and malicious envy with dark personalit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4*(4), 601-614. https://doi.org/10.1177/0146167217746340

Lange, J., Weidman, A. C., & Crusius, J. (2018). The painful duality of envy: Evidence for an integrative theory and a meta-analysis on the relation of envy and schadenfreud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4*(4), 572-598. https://doi.org/10.1037/pspi0000118

Latif, K., Weng, Q., Pitafi, A. H., Ali, A.,

www.kci.go.kr

Siddiqui, A. W., Malik, M. Y., & Latif, Z. (2021). Social comparison as a double-edged sword on social media: The role of envy type and online social identity. *Telematics and Informatics, 56*, Article 101470. https://doi.org/10.1016/j.tele.2020.101470

Lench, H. C., & Chang, E. S. (2007). Belief in an unjust world: When beliefs in a just world fail.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9*(2), 126-135. https://doi.org/10.1080/00223890701468477

Lenzi, M., Vieno, A., Gini, G., Pozzoli, T., Pastore, M., Santinello, M., & Elgar, F. J. (2014). Perceived teacher unfairness, instrumental goals, and bullying behavior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9*(10), 1834-1849. https://doi.org/10.1177/0886260513511694

Lerner, M. J., & Miller, D. T. (1978). Just world research and the attribution process: Looking back and ahead. *Psychological Bulletin, 85*(5), 1030-1051. https://doi.org/10.1037/0033-2909.85.5.1030

Liang, C. T., & Borders, A. (2012). Beliefs in an unjust world mediate the associations between perceived ethnic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4), 528-533. https://doi.org/10.1016/j.paid.2012.04.022

Liang, C. T., & Molenaar, C. M. (2016). Beliefs in an unjust world: Mediating ethnicity-related stressors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2*(6), 552-562. https://doi.org/10.1002/jclp.22271

Lo Cricchio, M. G., García-Poole, C., Te Brinke, L. W., Bianchi, D., & Menesini, E. (2021). Moral disengagement and cyberbullying involvement: A systematic review.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271-311. https://doi.org/10.1080/17405629.2020.1782186

Marco, J. H., Tormo-Irun, M. P., Galán-Escalante, A., & Gonzalez-García, C. (2018). Is cybervictimization associated with body dissatisfaction, depression, and eating disorder psychopathology?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1*(10), 611-617. https://doi.org/10.1089/cyber.2018.021

Moran, S., & Schweitzer, M. E. (2008). When better is worse: Envy and the use of deception. *Negoti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Research, 1*(1), 3-29. https://doi.org/10.1111/j.1750-4716.2007.00002.x

Muraven, M., & Baumeister, R. F. (2000). Self-regulation and depletion of limited resources: Does self-control resemble a muscle? *Psychological Bulletin, 126*(2), 247-259. https://doi.org/10.1037/0033-2909.126.2.247

www.kci.go.kr

Niveau, N., New, B., & Beaudoin, M. (2021). Self-esteem interventions in adults-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94*, Article 104131. https://doi.org/10.1016/j.jrp.2021.104131

O'Quin, K., & Vogler, C. C. (1990). Use of the Just World Scale with prison inmates: A methodological not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0*(2), 395-400. https://doi.org/10.2466/pms.1990.70.2.395

Ozden-Yildirim, M. S.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malicious envy, and cyberbullying in emerging adults. *Education in the Knowledge Society, 20*(1). https://doi.org/10.14201/eks2019_20_a30

Pinder, C. C. (2008). *Work motivation in organizational behavior* (2nd ed.).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Pornari, C. D., & Wood, J. (2010). Peer and cyber aggression in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role of moral disengagement,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outcome expectancies.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6*(2), 81-94. https://doi.org/10.1002/ab.20336

Qin, G., & Zhang, L. (2022). Perceived overall injustice and organizational deviance-Mediating effect of anger and moderating effect of moral disengagement. *Frontiers in Psychology, 13*, Article 1023724. https://doi.org/10.3389/fpsyg.2022.1023724

Rengifo, M., & Laham, S. M. (2022). Careful what you wish for: The primary role of malicious Envy in Predicting Moral Disengagement. *Motivation and Emotion, 46*(5), 674-688. https://doi.org/10.1007/s11031-022-09973-y

Roy, R., Som, A., Naidoo, V., & Rabbanee, F. K. (2024). How envy encourages beliefs in unethical consumer behaviour: The role of religiosity and moral awarenes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93*(2), 345-361. https://doi.org/10.1007/s10551-023-05573-z

Rubin, Z., & Peplau, L. A. (1975). Who believes in a just world? *Journal of Social Issues, 31*(3), 65-89. https://doi.org/10.1111/j.1540-4560.1975.tb00997.x

Smith, R. H., Parrott, W. G., Ozer, D., & Moniz, A. (1994). Subjective injustice and inferiority as predictors of hostile and depressive feelings in env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6), 705-711. https://doi.org/10.1177/0146167294206008

Tai, K., Narayanan, J., & McAllister, D. J. (2012). Envy as pain: Rethinking the nature of envy and its implications for employees and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7*(1), 107-129. http://dx.doi.org/10.5465/amr.2009.0484

www.kci.go.kr

Thiel, C. E., Bonner, J., Bush, J. T., Welsh, D. T., & Pati, R. (2021). Rationalize or reappraise? How envy and cognitive reappraisal shape unethical contagion. *Personnel Psychology, 74*(2), 237-263. https://doi.org/10.1111/peps.12387

Tolmatcheff, C., Galand, B., Roskam, I., & Veenstra, R. (2022). The effectiveness of moral disengagement and social norms as anti-bullying componen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hild development, 93*(6), 1873-1888. https://doi.org/10.1111/cdev.13828

van de Ven, N., Zeelenberg, M., & Pieters, R. (2012). Appraisal patterns of envy and related emotions. *Motivation and Emotion, 36*, 195-204. https://doi.org/10.1007/s11031-011-9235-8

Verduyn, P., Gugushvili, N., Massar, K., Täht, K., & Kross, E. (2020). Social comparison on social networking site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36*, 32-37. https://doi.org/10.1016/j.copsyc.2020.04.002

Wang, C., Ryoo, J. H., Swearer, S. M., Turner, R., & Goldberg, T. S. (2017).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bullying and moral disengagement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6*, 1304-1317. https://doi.org/10.1007/s10964-016-0577-0

Wang, Y., Li, Y., Meng, H., & Kong, S. (2024). Injustice Promotes Unethical Behavior Through Moral Disengagement.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46*(1), 7-18. https://doi.org/10.1080/01973533.2023.2275070

Wei, X., & Yu, F. (2022). Envy and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The mediating role of self-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2), Article 639. https://doi.org/10.3390/ijerph19020639

Wright, M. F. (2016). Cyber victimization on college campuses: Longitudinal associations with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and anxiety. *Criminal Justice Review, 41*(2), 190-203. https://doi.org/10.1177/0734016816634785

Xu, H., & Chen, Z. (2023). Perceived teacher procedural justice and aggressive behaviors among Chinese primary students: The mediating roles of negative evaluation of school rules and malicious envy.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26*, 25-44. https://doi.org/10.1007/s11218-022-09737-z

Zhang, R., Zhang, C., & Xu, W. (2022). Longitudinal association of peer victimization with aggression and self-injury in adolescence: The mediating role of belief in a just worl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6*, Article 111706. https://doi.org/10.1016/j.paid.2022.111706

Zhao, H., & Zhang, H. (2022). How personal

www.kci.go.kr

relative deprivation influences moral disengagement: The role of malicious envy and Honesty-Humility.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63*(3), 246-255. https://doi.org/10.1111/sjop.12791

Zhao, H., Zhang, H., He, W., & Chen, N. (2020). Subjective well-being and moral disengagement in Chinese youths: The mediating role of malicious envy and the moderating role of Honesty-Humilit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9*, Article 105655.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20.105655

Zitek, E. M., Jordan, A. H., Monin, B., & Leach, F. R. (2010). Victim entitlement to behave selfish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2), 245-255. https://doi.org/10.1037/a0017168

www.kci.go.k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25, Vol. 38, No. 3, 19-39

Belief in an Unjust World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Among Early Adults: The Mediating Effects of Malicious Envy and Moral Disengagement

Kyuwon Ham[1] Seungyeon Lee[2]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M.A.[1]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2]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an unjust world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malicious envy and moral disengage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402 early adults through a survey,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tes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belief in an unjust world did not directly predict cyberbullying perpetration. However, the simple mediating effects of malicious envy and moral disengagement were significant, an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both variables was also significant. Specifically, belief in an unjust world increased malicious envy and moral disengagement, which, in turn, led to greater cyberbullying perpetration. These findings confirm the role of belief in an unjust world in fostering negative psychological mechanisms that contribute to cyberbullying among early adults.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justice-related beliefs and offer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targeted interventions.

Keywords : Belief in an Unjust World, Malicious Envy, Moral Disengagement, Cyberbullying Perpetration

www.kci.go.kr